

말씀의 샘

사랑만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4~12>

오늘 읽은 본문이 쓰여진 배경으로서, 고린도교회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말이 많고 각종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붕괴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처간 설교자들을 평가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들의 파벌을 만들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싸우고, 일부 성도들의 삶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무너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령한 체험들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다보니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주셨던 것 같은데,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를 경험하게 되니 그것들이 오용되어 다른 교인의 질투와 비교의식을 유발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한 질서와 정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하면서 진짜 은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책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읽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다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결혼식주례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내용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새벽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동안 문득 이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건디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앞에 예수님을 붙여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4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차피 흉내 낼 수도 없고, 따라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맺히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맺히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채우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순간,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종교적인 사랑, 이론적인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는데, 머리로 아는 사랑은 큰 힘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체험되고 그 사랑의 힘이 날 끌어갈 수 있을 만큼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힘있게 그 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과거에 노예상인이었습니다. 포악하기 이를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고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이나 이론으로 가르침과 말로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시를 지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가 지은 원가사의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여 얼마나 감미롭게 들리는가? 그 소리가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였도다!" 정말 사랑이 가슴에 부딪히고 감동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력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의 사랑으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이론적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하지만 초대 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진짜 사랑이 가슴속에 있었고 그 사랑이

그들을 압도하여 그 힘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둘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사랑만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루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가장 고귀한 이념과 가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알 수 있으며 그날에는 거울처럼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게 되고 이루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바쁘게,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실겁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어제까지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만이 남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러 얼마나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며 배워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11월 27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2. 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고린도후서 12:7~10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앞에 인정하라."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두란노 교회
DURANNO CHURCH

